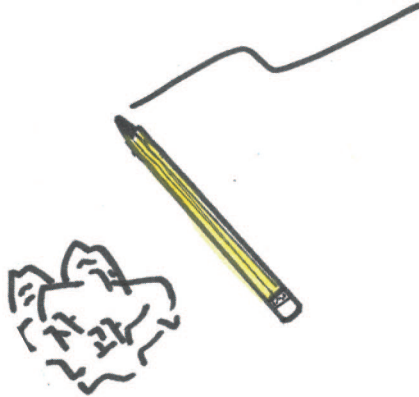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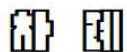
1학년 자유학기 주제선택 작품집

뽐뽐뽐뽐 뽐뽐뽐



일곱 색깔 무지개처럼
저마다의 빛깔로 빛나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일곱 편을 담았습니다.

지도교사 엄애숙 선생님



나는야 호스트

내 세상

학원 안 간 날

곯하기는 어려워

최고였다 최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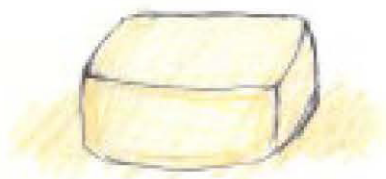
4발 말고 2발

감나무 아래서 할아버지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은 인절미잖다.



부스스 떨어지는 콩가루가,
찰진 떡같은 생김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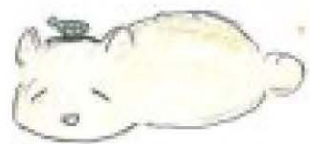
그것은 인절미를 닮았다.

나른한 표정, 콩가루 같은 피부색
촉촉한 코, 만지고 싶어지는 부드러운 털

손에 들어오는 아담한 햄스터

우리집의 사랑받는 반려동물

“콩이”





콩이는 가끔 '내 말을 알아듣나?'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콩이가 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해도 내가 콩이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다.



콩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콩이는 무엇을 좋아하지? 콩이는 무엇을
싫어하지? 나에게 콩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텐데.

LIKE



H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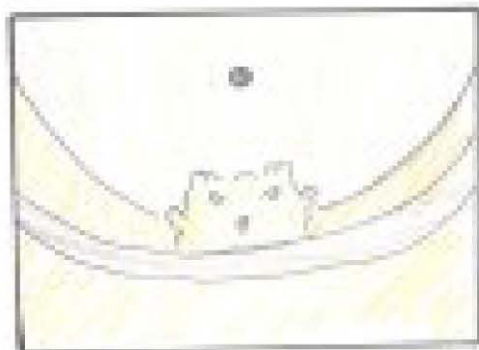


타 타 타 타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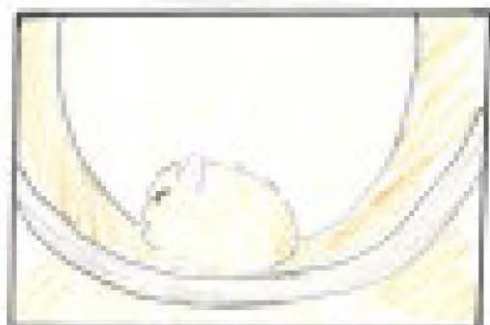
이건 무슨 소리지? 아하!
콩 이 가 찻바퀴를 타는 소리구나.

콩이는 밤 낮 가리지 않고 찻바퀴를
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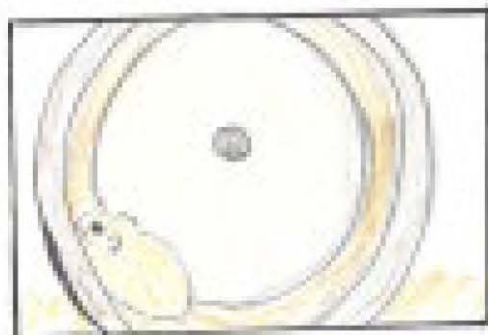
김민서



“크물”



“크흠”



“크흠다”



어

어~

어



너무 더워.... 공이가 말했다.

헉! 공이가 어디갔지?!

휴.. 여기 있었구나..ㅎ

공이는 많이 더웠는지 집 밖에서
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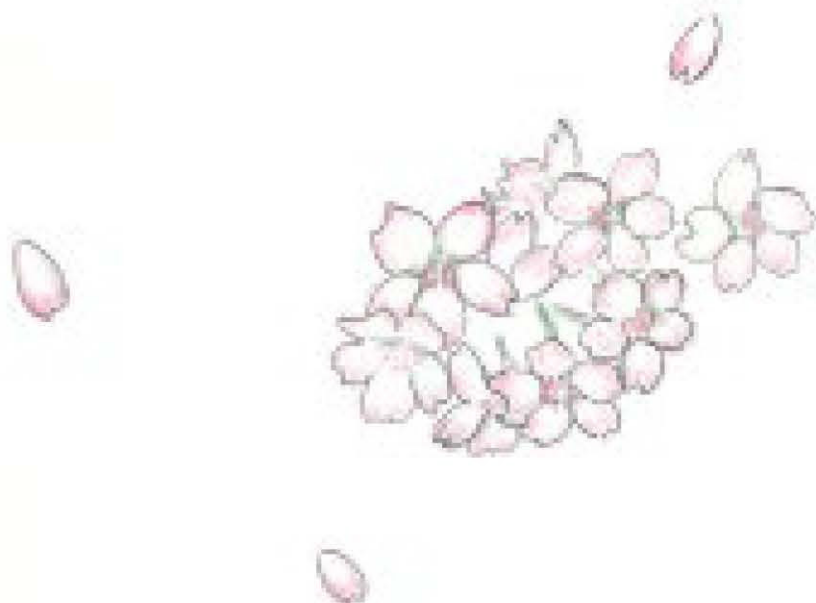


손에 딱 들어오는 콩이는
마치 찹쌀떡 같아.

고 부드러운 털이 나는 참 좋다.



콩이는 나의 친구이자 가족이다.
따스한 봄처럼 내게 찾아온 콩이는 아주
작은 벚꽃잎 같았다.





자 가 의 마 리

전 하고 싶어요.....

저는 이 책을 읽을 동안에
여자가 만든 책을 통해 자신이 '행복'이란
순간을 돌아보길 바라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행복하셨나요?

저는 이 책을 만들 때 아주 많이
행복했어! 그 상태로 오랜만에 글이 나와
주제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잖아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부디, 주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정해야 한다.....

우선 여자가
첫 번째로 느낀 정은
바로 수정입니다.

쓰고나면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다시 고쳐 쓰고

너무 힘들어서

'대체 이 수정은 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환상과 수정을

한 글자 좀 더

읽기가 편하게 하고요.



대단하타....

두번재로 저는 책을 쓴 이 경험을 통해
작가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쑥히 고들...에 이한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실제 작가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집 캥거루하타...



아름 이쁘고 귀엽고 잘생기는 반지에
생겼지 캥거루. 내와 똑똑하게 생겼고
말쑥말쑥하게 생기고 은근히 잘아서 귀찮게 하기도 합니다.
자들내를 주름까지도 귀여워요 ㅎㅎ
흔히 말쑥하든 아니든 말쑥하든 그냥
말쑥말쑥말쑥말쑥 말쑥말쑥말쑥말쑥.



두 번째 이야기

내

세
상

2012. 12. 21



나는 7살 전까지는 평범한 소녀였다.



어릴때부터 질투가 많았던 난
예뻐받는 그 아이를 항상 질투해왔다.
좀 심하게



그래서 나도 그림으로 예쁨받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내 손으로 도화지에 내 세상을 그렸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나를 "그림의 영재"
라고 불렀다.
나도 예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줄 몰랐다.



그렇게 10살이 되었을때
사람들은 더이상 나를 칭찬하지 않았다.
내 노력이 부끄럼스럽고 내 세상이 우너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로
내 세상을 조금씩 오염되고 싹어 묻드러져 가다
영혼버렸다.



이 세상이 빛을 잃어간지 얼마가 지났는지도
더이상 알 수 없을때 나는 생각했다.



"내가 어쨌다가
이렇게 돼버린거지?"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찾기위해
망가뜨리기 전 내 세상을 열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나만의 세상,
내 세상을 무너트린 자들을 미워했지만
무너트리라 명령한 자는 나였다.



나는 내 세상을 밤이들이고
뜨거운 눈물로 다짐한다
:
: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로.



단 이번엔 오직
나만의 세상을 만들기로.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찾기위해
망가뜨리기 전 내 세상을 열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나만의 세상,
내 세상을 무너트린 자들을 미워했지만
무너트리라 명정한 자는 나였다.



나는 내 세상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눈물로 다짐했다
.
.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로.



단 이번엔 오직
나만의 세상을 만들기로.



무... 예전과 똑같아 질 순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은자의
선택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그럼 안녕
:
내 세상



작가의

안녕하세요, '내 세상'의 작가 이가연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 책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많은

'나의 시선은 신경쓰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자'입니다.

생각보다 전하고 싶었던 많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때 상당히 멍청한 아이였습니다.

항중 아는건 없는데 질투는 많은

애기적인 아이였습니다.

사랑받는 그 아이가 질투나 시작한게 그림이었고

그때의 사랑과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말

그림그리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하늘의 별보다 많고 그림에 가지고 있는 애정은

밤하늘 보다 높습니다.

여러막 양로는 제가 가장 잘 그렸다고 생각하는 장면을
알게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14p~17p가 가장 힘들고
잘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6p~17p는 힘이 좀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세상의 이가면 작가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하원안감날

글, 그림 : 최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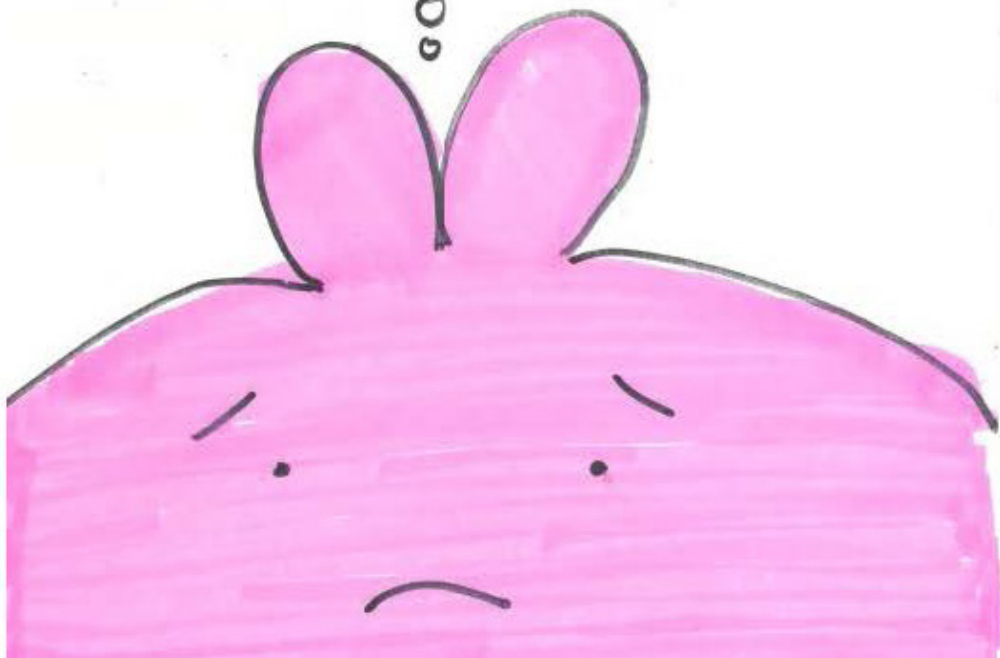




그날은 평소와 같이 학교가 끝나고 학원가기전
친구집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가 동사무소 옆
의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 가는줄 모르고 이야기 하니 학원 갈 시간이
되어 있었다 그날 따라 더욱 친구들과 노는게
재미있었던 나는 어떻게 하면 학원에 가지
않을수 있을까 고민했다 엄마께 말해볼까
고민했지만 괜히 잔소리만 들을것 같았다



나는 결국 학원에 몰래 빠지기로 했고 친구와
 밤이 되도록 열심히 놀았다 놀았던 학원에 안가
 즐거웠는데 막상 집에 와 엄마의 얼굴을 보니
 죄책감이 들었다



조금 시간이 흐르고 다음주가 되었다 저번과 같이
그 친구와 놀고 있는데 또 학원에 가기 싫었다
머리를 가야 한다는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르지 않았고 결국 또 학원에 가지 않았다



또 다음주가 되고 학원에 빠져도 안 좋겠다는
생각에 그날도 학원에 가지 않았다 그칠이니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
날때도 있었지만 금세 까먹고 잊었다.

다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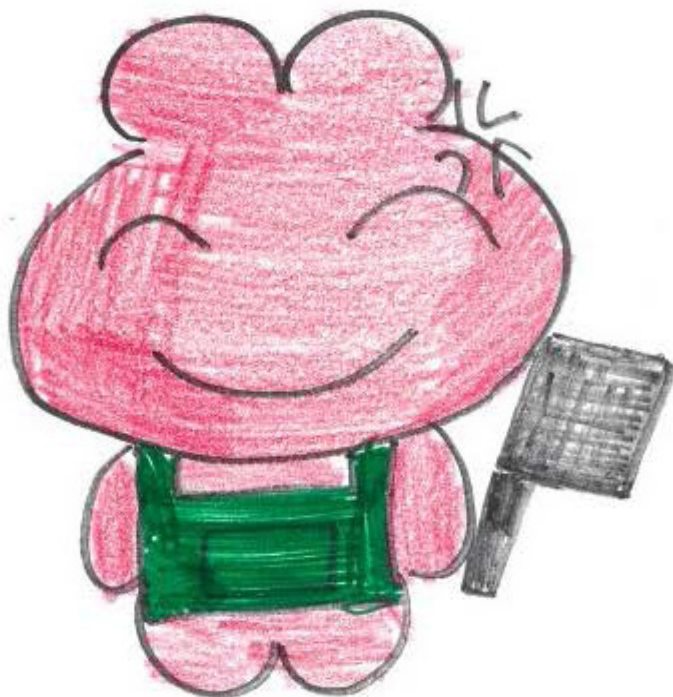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온 순간
 싸한 공기가 맴돌았고 큰일났다는 걸 직감했다
 엄마께선 나에게 앉아보라고 말하셨다 그리고
 다들 이어하셨다
 “너 학원 안 갔지?”



말이 끝나고 나는 대답을 할수 없었고 정적이
흐르는 동안 내 식은땀도 흐르고 있었다.
거짓말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차마 할수
없었고 결국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하게 말하니 조금 후련했지만 내 눈앞
엔 화산 엄마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곤 얼마
가선 나를 품내었다 품내는 동안 그동안
학원을 빼앗던게 후회되였다



엄마께서 학원 몇번 빠졌냐고 물어보셨는데
 3번이라고 대답하니 더 혼났다 3번 빠지니
 3배로 더 혼나는 것 같았다 그러곤 엄마께서
 마지막으로 학원 몰래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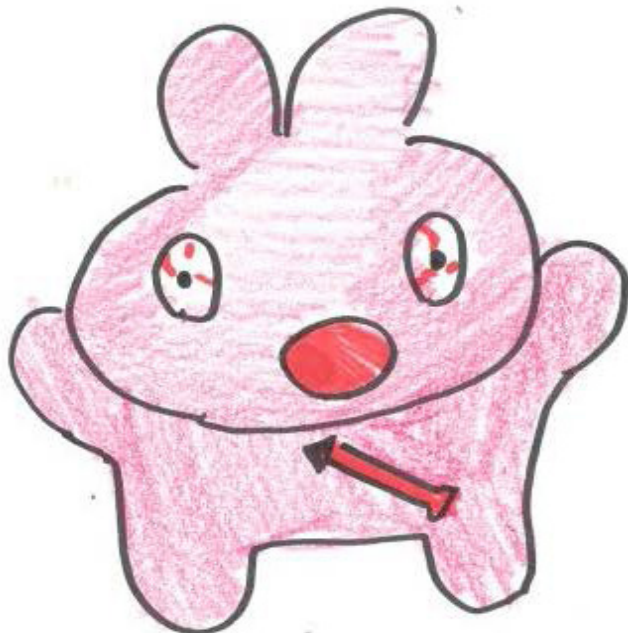


나는 다신 안그러겠다고 약속하고 엄마께선
날 용서해 주셨다 환하고 나니 또 학원에
바라보면 진짜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신 안그럴게요

그리고 잘못은 어차피 내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학원에 몰래 빠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잘못은 언젠간 내게
화살로 돌아오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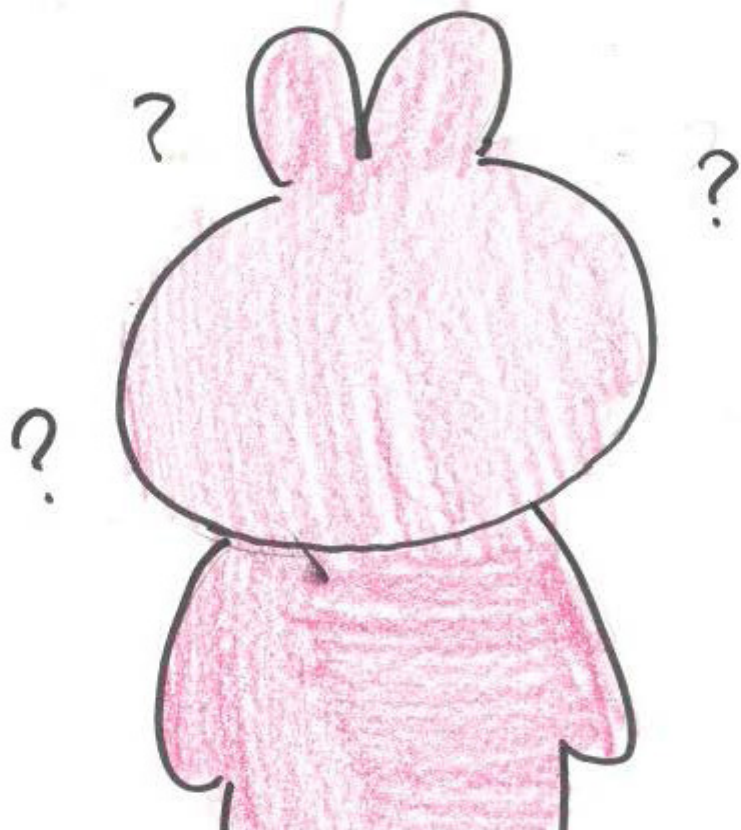


그날 이후 절대 허벅지에 물래 빠리지 않고
정말 빠지고 싶을땐 꼭 물어보고 가지않았다
이게 작은 계기가 되었던지 아닌진 모르겠
지만 아마도 전보다 조금더 성실하게 살수
있었던 계기가 되것같다



성실하게 살자!

그리고 내가 다니던 학원은 출석일수를 잘
알수 없고 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알
수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빠졌는지 알았냐고
엄마께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내 폰에 깔려있던 앱이 핸드폰
시간 관리 앱으로 부모님과 연동되어있었는데
아이가 어디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으로 알았다고
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라 신기했다



잘못은 결국 돌아온다
성실하게 살자

작가의 말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성실하게 살자이다
비늘도둑이 소도둑 되듯 잘못된 행동을 한번이 어렵지
그 이후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성실하게 살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하고
싶다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항상 양심을 지켜야
잘 살수있다 인것 같다

책을 만든 소감은 그대일을 다시 한번 떠올리
며 그대 깨달음이 다시 생각나서 한번더 깨달음
을 새길수 있는 기회가 되것같아 좋았다

내가 뽑은 명장면은 임마가 화난 장면이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임마의 감정이 생생
하게 표현된것 같아 명장면으로 뽑았다

쌤 사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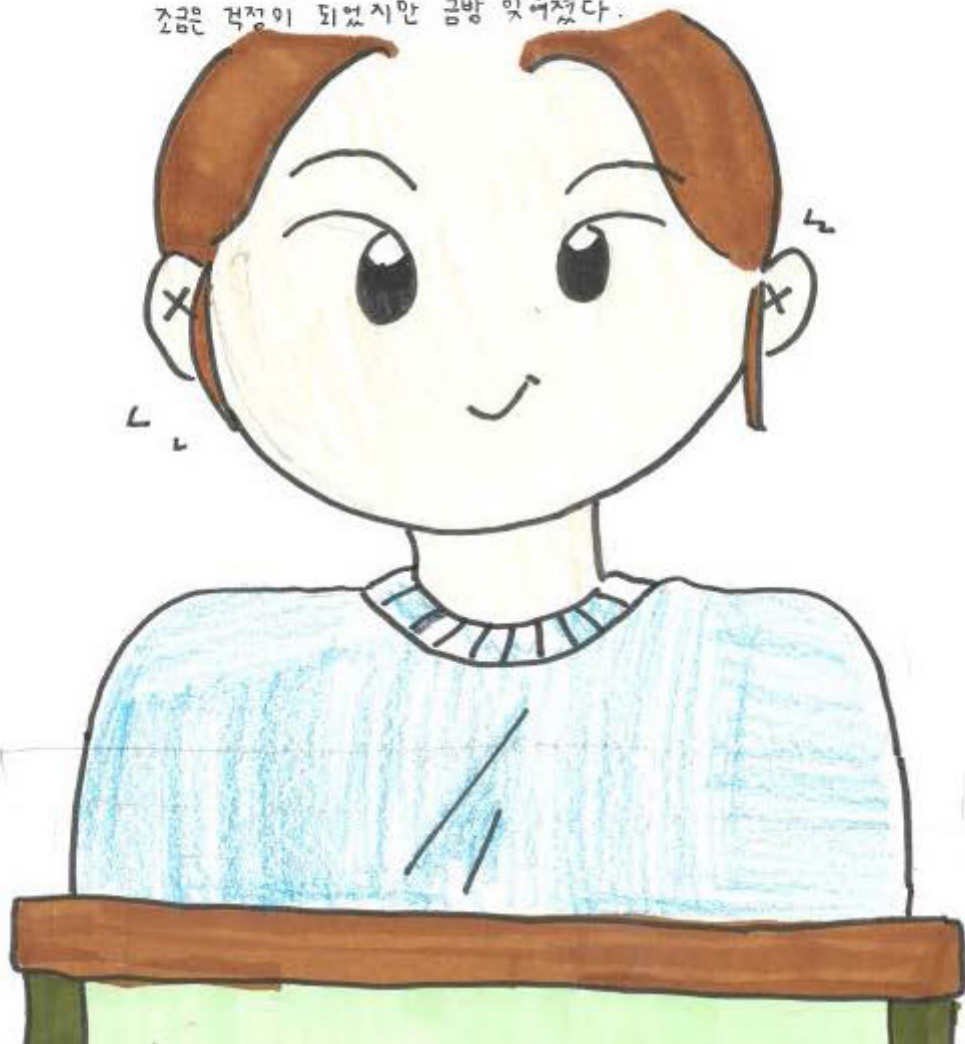
네 번째 이야기



평소와 다른지 않던 어느날 아침
 여느때와 같이 친구들과 용기종기 모여 떠돌고 있었다.
 그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음날 구구단 시험을 볼테니 열심히 외워와!" 라고 하였다.
 교실 곳곳에서 아이들의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들려왔다.



물론 나도 구구단 시험이 그다지 솔진 않았지만
그당시 나는 내가 천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득차 있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나는 집에 와서 느긋하게 외를 생각으로
자신만만해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 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던 건지
조금은 걱정이 되었지만 금방 잊혀졌다.



학교가 끝난 후 집에 도착해
 바로 가방을 내려놓고 TV를 보려했지만
 가방에 비죽 튀어나온 시험지가 자길 봐달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이미
 TV에 정신이 팔린 후였기 때문에
 결국 저녁까지 쉬다 잠에 들었다.



이른 아침 난 눈이 번쩍 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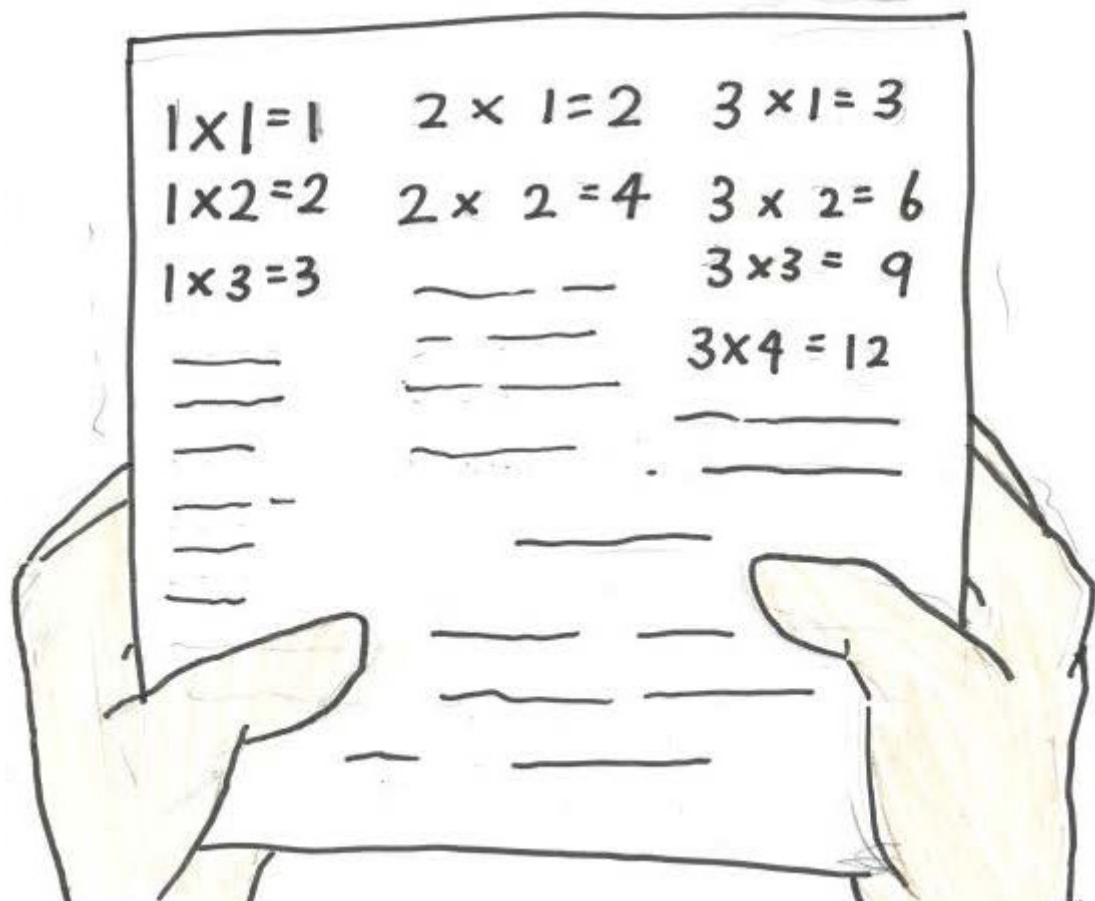
일어나자마 왠지 모를 불안함이 느껴졌다.

무슨 일인지 생각하던 그때 오늘이 구구단 시험이란 걸

알아차렸다. 나는 가밤에 있던 구구단 시험지를 꺼내

외워볼려 했지만 역시나 절대 외워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나는 불안함에 휩싸이게 되었다.





결국엔 구구단을 하나도 외우지 못한 채로
불안함을 안고 학교에 도착했다.
그때에 아이들 생각도 폭잡났던 건지
교실 안에서는 너도나도 구구단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탁" 불안함이 극에 달할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바로 77단 시험 이야기를 꺼내셨다.

"10분 뒤 시험을 시작할테니 외우고 있어라.

다 외워 왔겠지?"





10분뒤 구구단 시험이 시작됐고

"번호대로 나와서 시험을 볼테니 1번부터 차례대로 나와."

라고 하셨다. 그 뒤로 1번, 3번, 4번... 이 차례대로 불린 후
내 앞의 아이인 5번 친구가 완벽하게 통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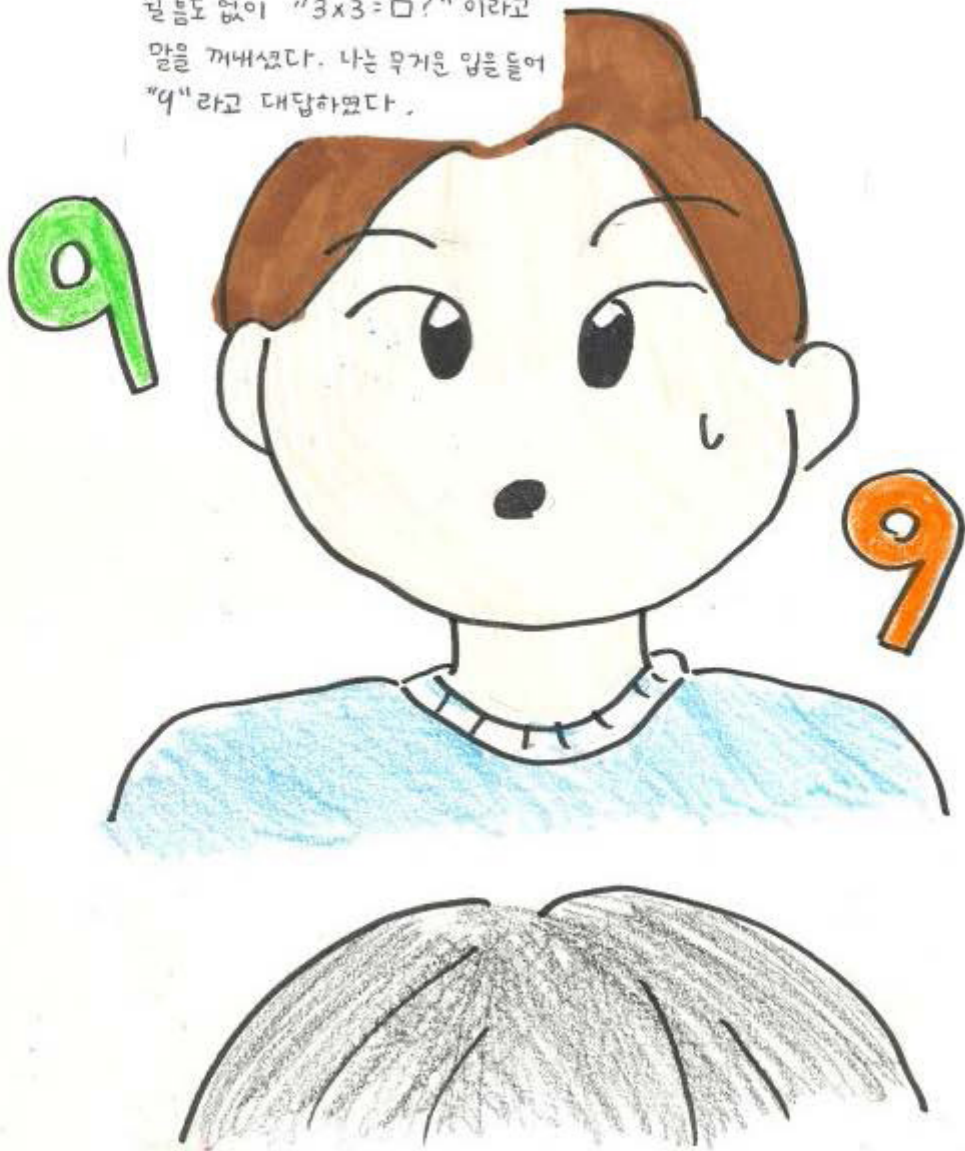
나는 당장이라도 심장이 뛰어나올 것만 같았다.

몇 초뒤, "김지호" 하며 날 부르셨다.

앞으로 나와서 나는 반에서의 적막과
아이들의 숨소리가 나를 더욱 긴장시키는 것만 같았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꼭 참고 시험을 시작하였다.



바로 선생님께서는 "시험 시작" 이라고 하였고
윽 틈도 없이 " $3 \times 3 = \square$?" 이라고
말을 꺼내셨다. 나는 무거운 입을 들어
"9" 라고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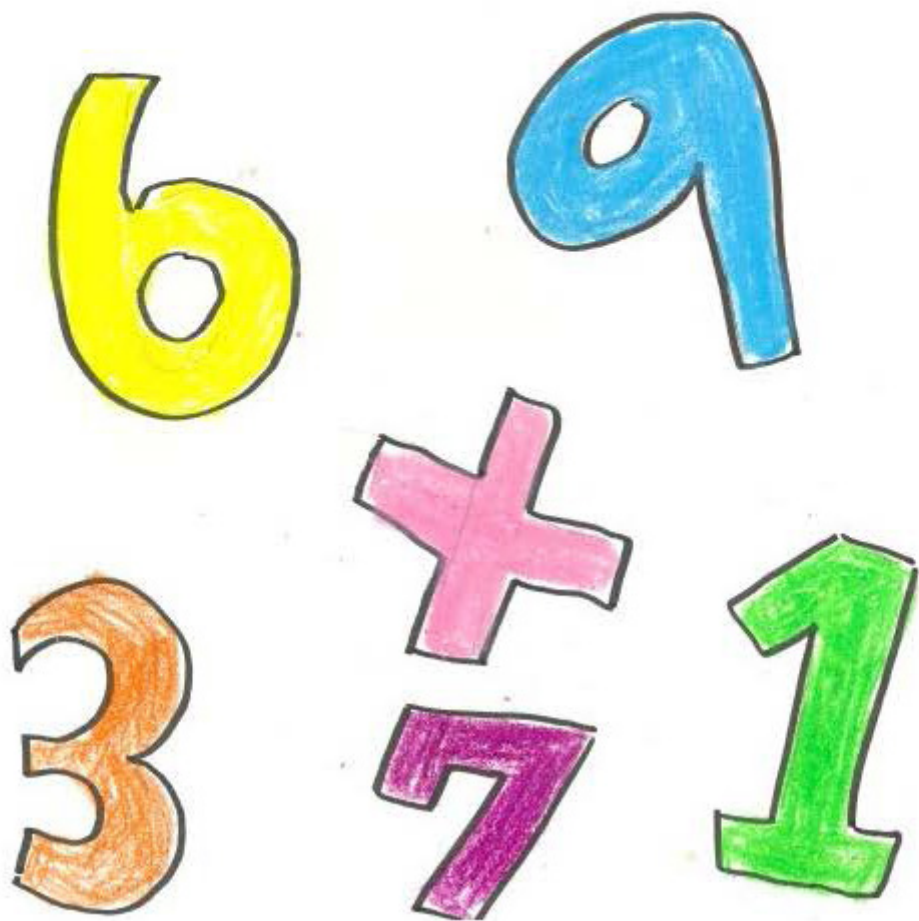
9라고 말한 다음, 몇 초간의 시간동안 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다. 다음 문제에 대한 걱정고

한 문제라도 맞았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이 기뻐다.

그 이후로 2단, 3단, 4단 ... 를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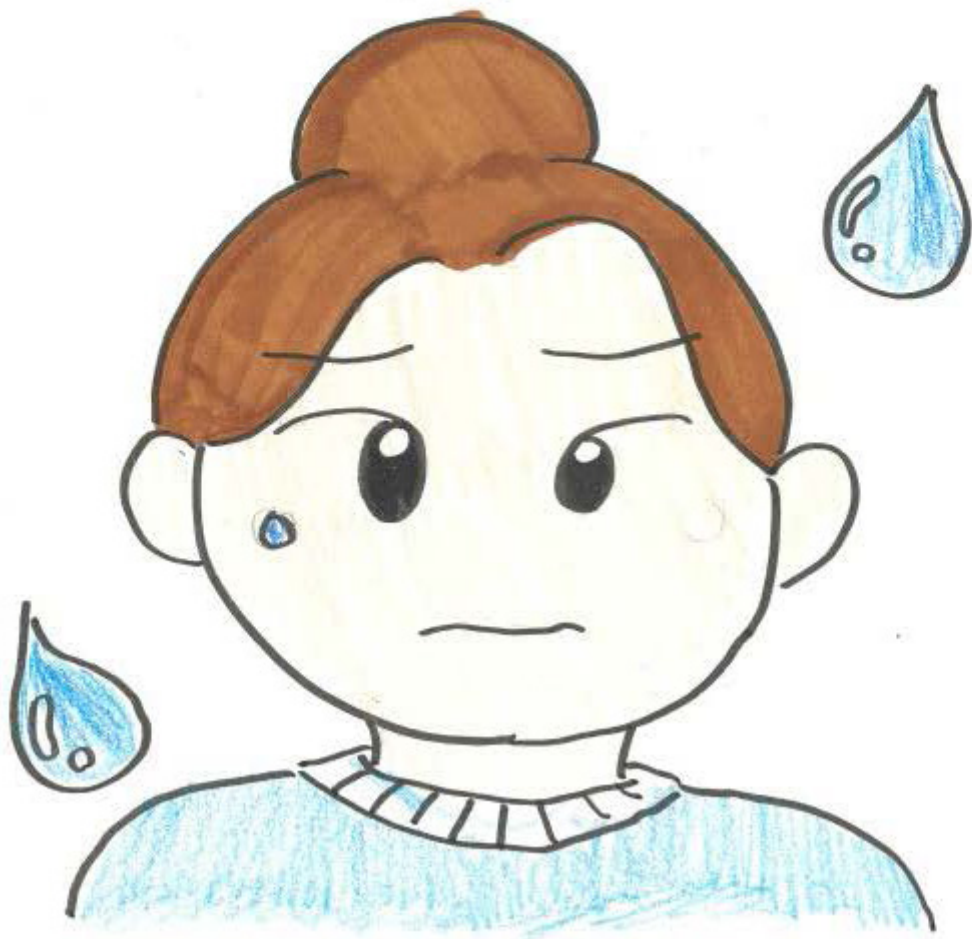
조금의 실수가 있었지만 조금의 실수는 선생님께서 보자셨다.





대망의 9단이 되었고 선생님께서
9x9 라고 말하신 다음
너무 기뻐던 탓인지 불안했던 탓인지 나의
나의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것만 같았다.
그 후 3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선생님께서는
"남아"라며 두 마디 하시고는 나는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터덜터덜 자리로 돌아가 내가 통과하지 못했다는
분함과 언제 모를 슬픔에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 이후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께서는 “모두 잘했어!” 라는 말과 함께
남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쉬는 시간이 되었고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는
"괜찮아?"라며 물어봐 주었다. 나는 애써
괜찮은 척하며 "괜찮아. 어차피 좀 남으면 돼."라고했다.
그 이후로 나는 정말 열심히 외웠다.
그렇게 외우다보니 시간이 벌써 종례시간이 되어있었다.



종례시간이 되자 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남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혼자 남겼다는 생각에 외로웠지만
남은 아이들이 은근 많아서 내심 기뻐다.

결국 교실에 남아 구구단을 외우고 있었는데
많았던 아이들이 한 번에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남은건 나 포함 세 명밖에 남지 않았다.

나는 초조한 마음에 재빨리 검사를 받으러 나갔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시험을 시작했고.

3단, 4단, 5단... 씩 통과해 나갔다.

드디어 9단을 시작했고 9단의 끝에 다다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 $9 \times 9 = 17$?" 이라고 물어보셨고

나는 재빨리 "81" 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둘라" 라고 대답해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나는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기분으로 가방을 싸서 학교를 나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자만하지 생각 등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언제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운 하루였다.



작가의 말

이번 책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말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도
연습을 게으르게 하거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고
잘하지 못하게 되듯이 자신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

나는 어렸을 때의 경험이 꽤 충격적이었던 건지 오래 기억에
남았다.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나는 아무리 잘하고 익숙한
일이라도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층 더 성장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을 만들면서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 책은 내가 잊고 살아갈 때마다
다시 한 번 나에게 교훈을 주는 의미깊은 책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가 붙은 명장면은 내가 남아서
구구단을 외을 때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만 남은 장면이다.

이 장면이 사람들이 "와!" 하며 감탄할 만한 장면은
아니지만 나에게서는 제일 기억에 남고 의미깊은 장면이다.
왜냐하면 남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무서웠지만 나 말고도
남는 애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사라지자 나만 남겠다는 외로움과 초조함이
배가 되어서 더욱 초조했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전화번호: 010-6941-1892

이메일: jiho74940

@gmail.com



독자의 말

- 누구나 한 번쯤 겪었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쓴 점이 매우 좋았다.
또한 그림과 이야기가 잘 어우러졌던 점이 보기 좋았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몰입하고, 더 공감했던 것 같다.
- 펼쳐보이긴 했는데 완전 잘 남독해~ 역시 지호
- 이야기에서의 감정을 잘 담은 것 같아 좋았다.
- 그림을 잘 그려 보는 재미가 있었고, 말도 잘해줘서 재미있었다.
- 주제라 하고 싶은 말이 많았고, 그림으로 표현을 잘 했다.
- 진짜 판권책 같았다.
- 나도 물면서 극단을 외웠는데 그 점이 공감되었다. 너도 힘들게 공부했구나.
-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공감이 갔다. 진짜로 판권책 같았다.
- 그때 그 감정이 생생하게 평가된 것 같아!
- 느낌이 잘 표현됐다.
- 책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잘 표현됐고 그림체가 예뻐다.
- 그림이 너무 예뻐보고 감정이 잘 담겨서 너무너무 잘한 것 같다.
너무너무 부럽다. 지호 너무 잘해..
- 발표를 잘하고 망설임없이 해서 잘 한 것 같다.
- 글을 생생하게 잘 썼다.
- 글이 재미있고 좋았다.
- 공감되는 소재에 자신의 느낌 생각을 잘 표현한 것 같다.
- 글이 재미있고 좋았다.
- 너무 잘 써.♡
- 발표를 잘 이어가서 포박포박 잘 해서 만족했다.
- 공감이 되는 내용이고 그림도 잘하고 글도 잘썼다
- 작가의 말에서 거짓말 친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
너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쓴 거라고 그림도 잘 그렸네.

다섯 번째 이야기


죄고였자

최악

글·그림 10113 반자희



5학년 첫 날, 친한친구가 없었던

너와 나.

우리는 매우 빠르게

친해졌다

5-1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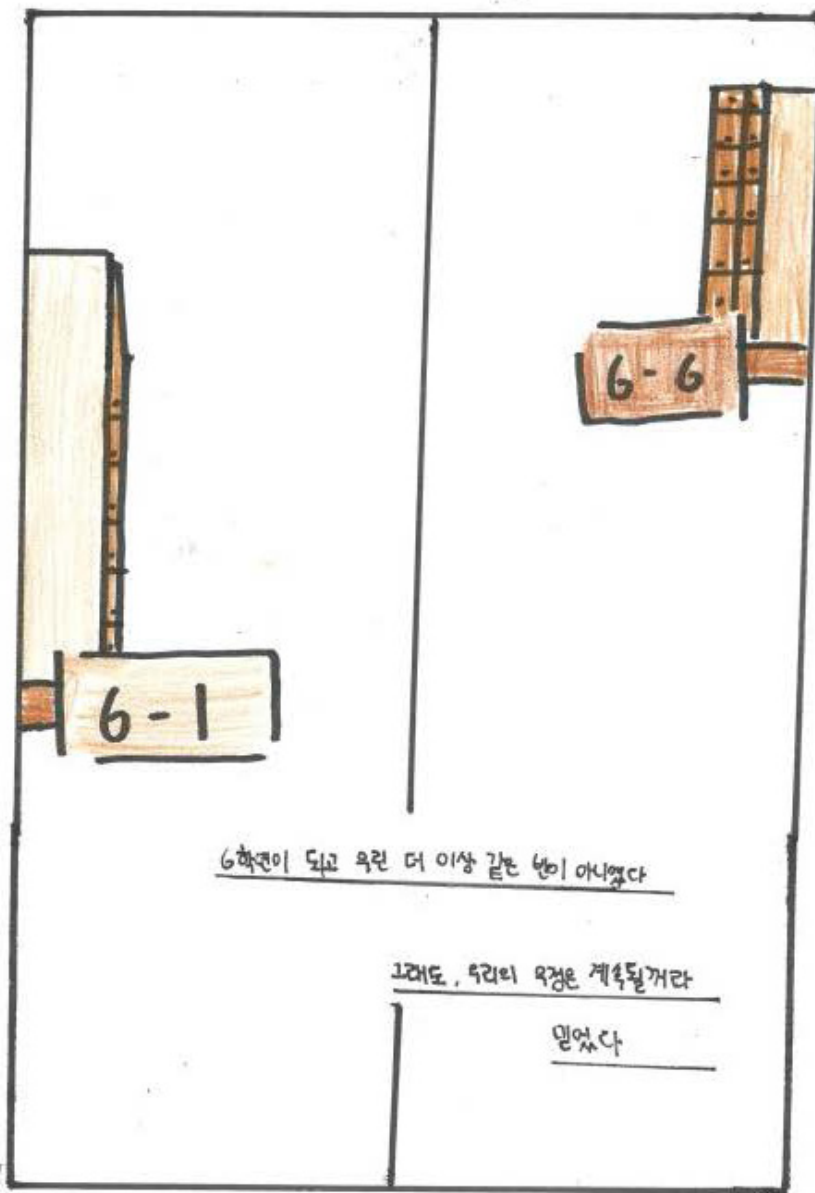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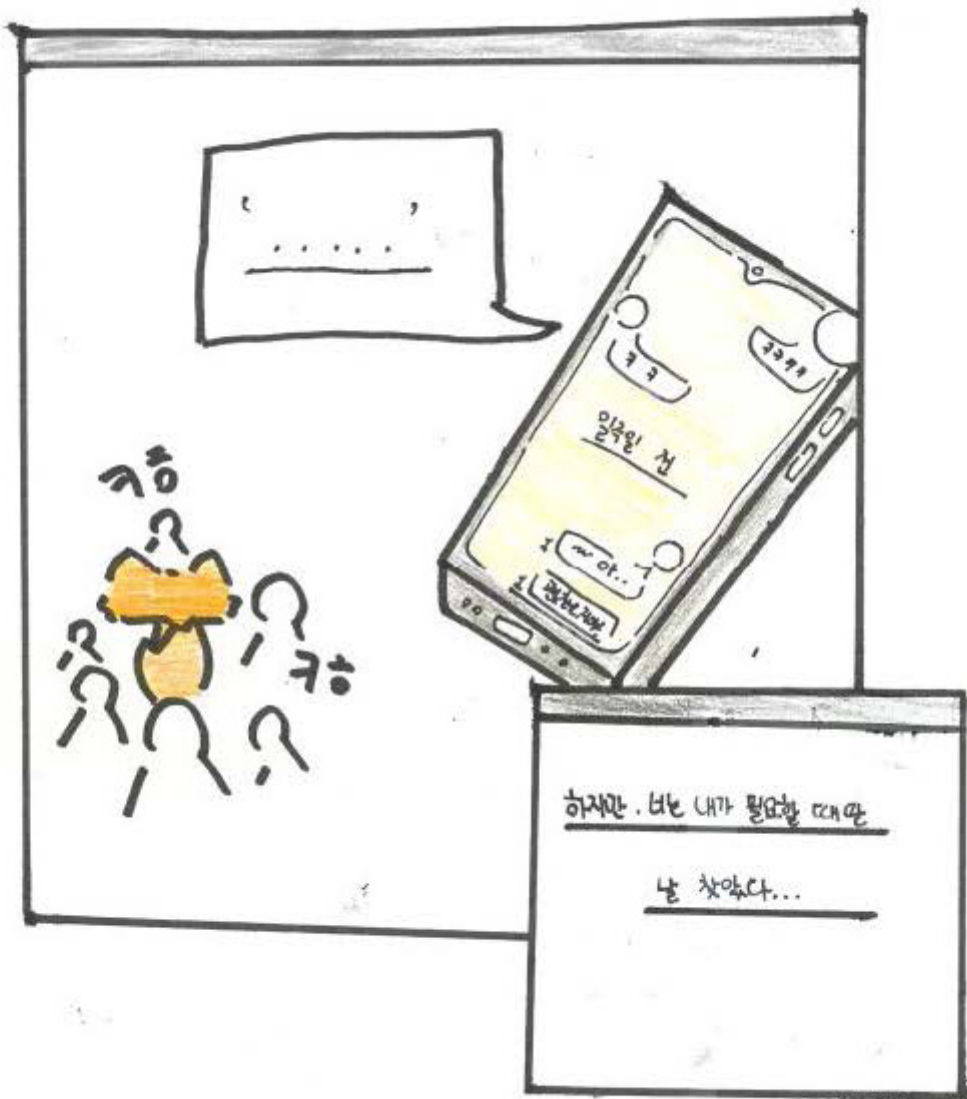
안녕! 난 ~~나~~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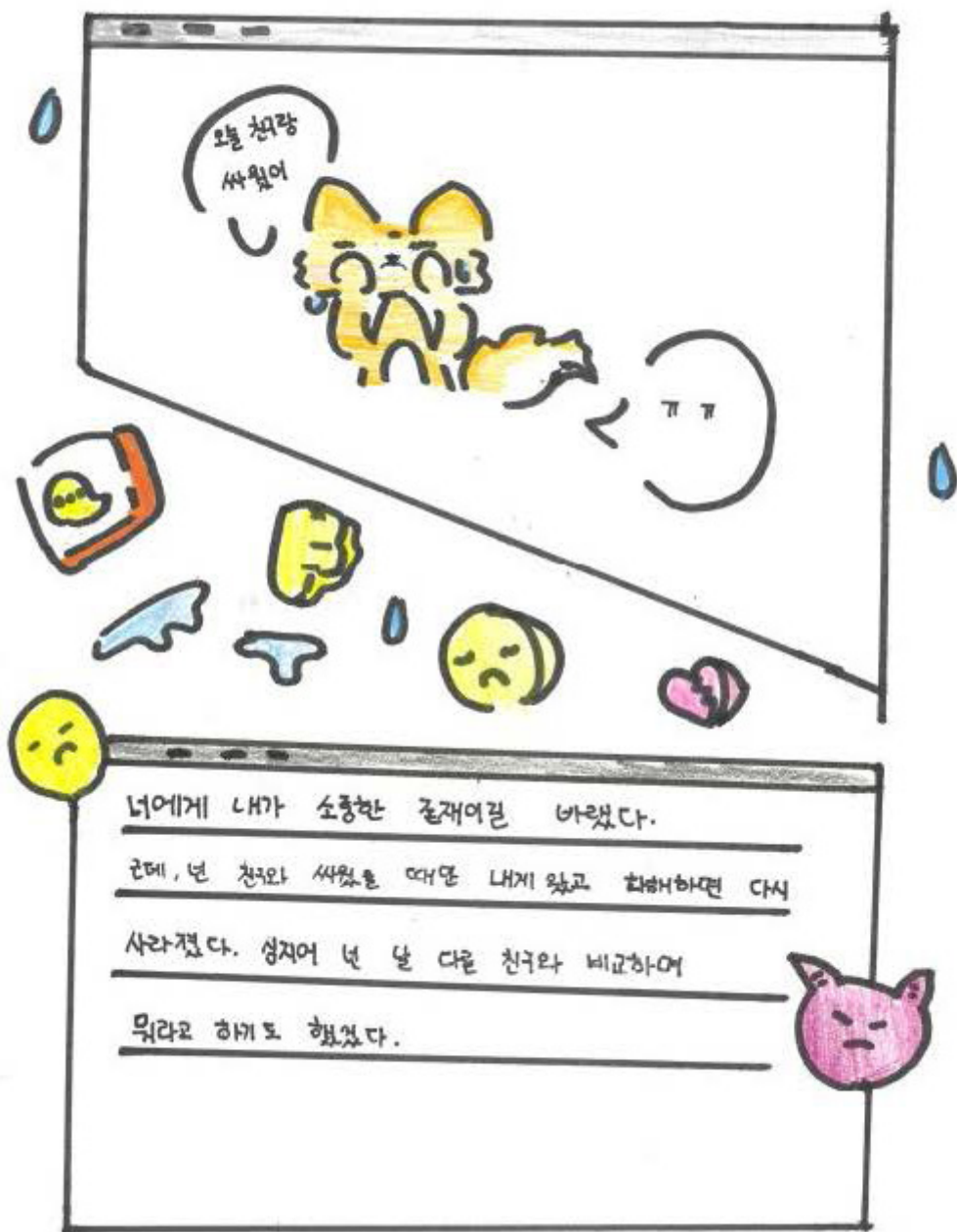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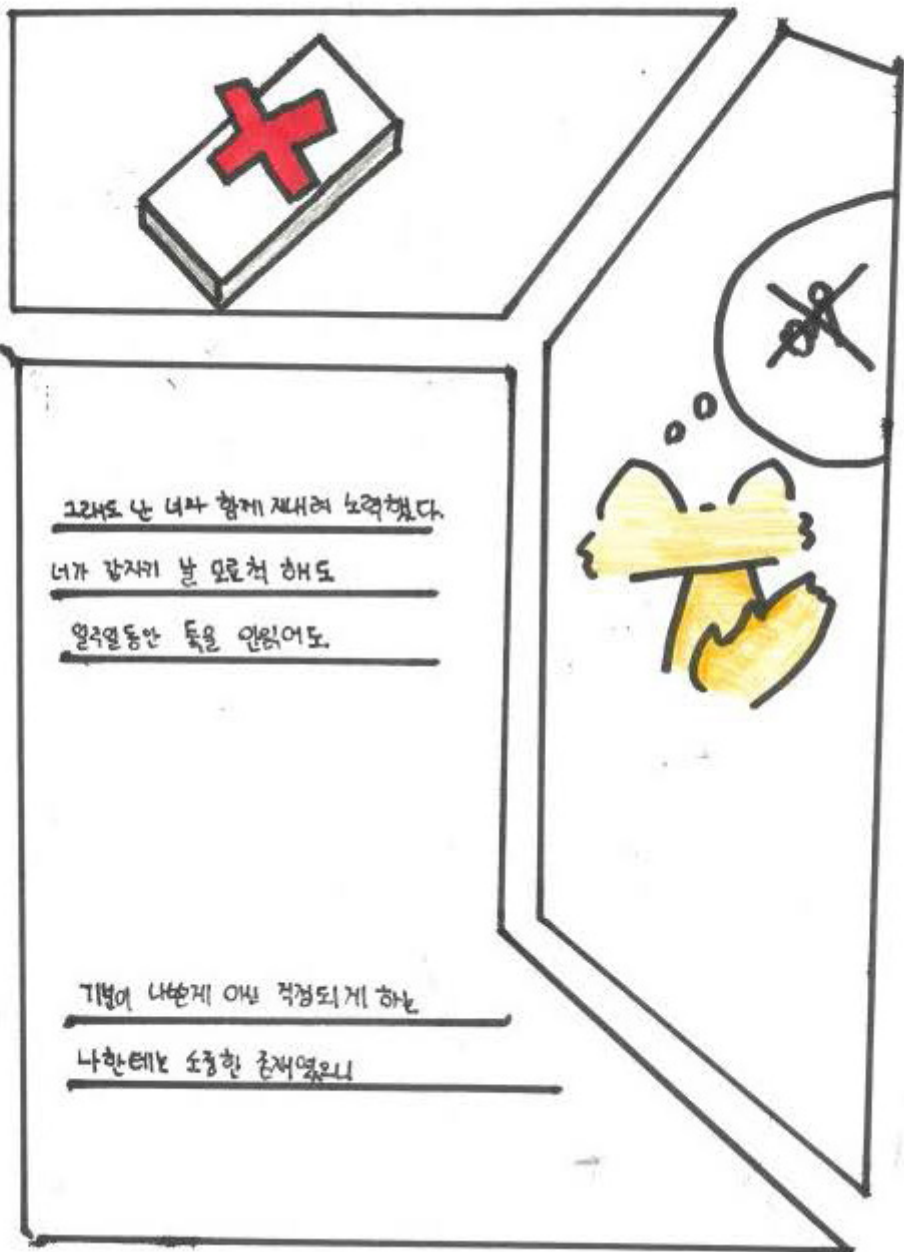


너에게 내가 소중한 존재여길 바랐다.

근데, 너 친구와 싸웠을 때만 내게 왔고 화해하면 다시

사라졌다. 심지어 너 날 다른 친구와 비교하여

뭐라고 하기도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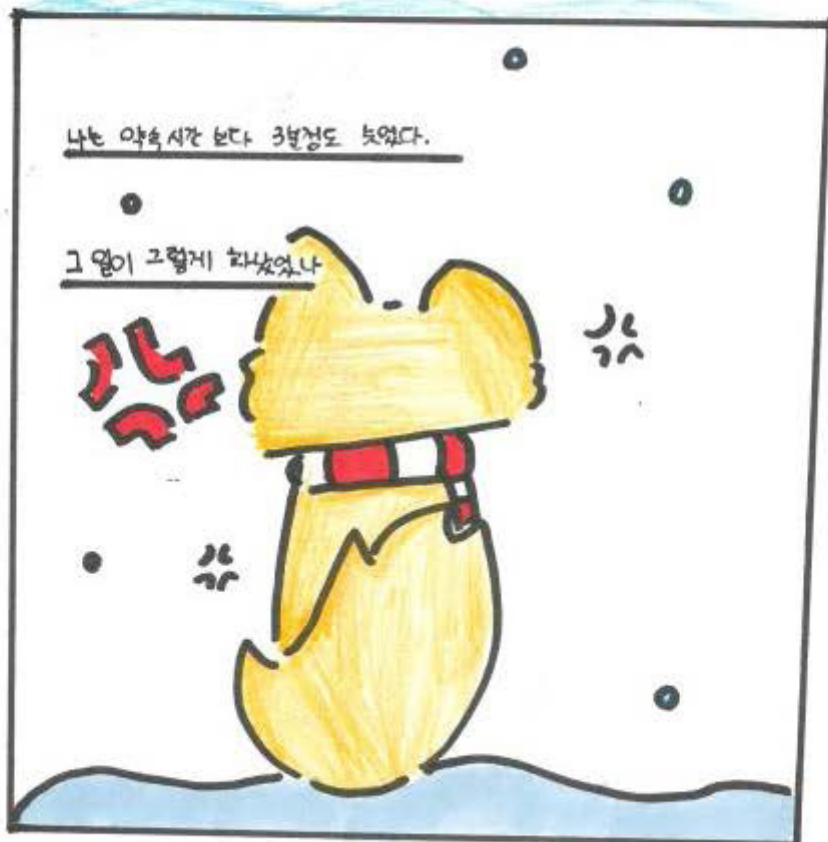
그래도 난 너와 함께 재래려 노력했다

너가 갑자기 날 모른척 해도

얼굴동안 독을 안읽어도

기분이 나쁘게 아니 걱정되지 하는

나한테는 소중한 존재였으니



넌 나에게 짧은 목은 건네었다.



그게 얼마나 상처이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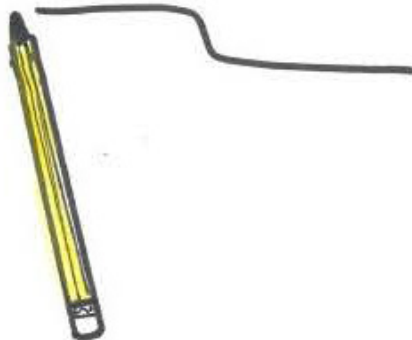
그 짧은 말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다.

잊으려 해도, 잊고 지나가려 해도...

너한테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닌지

느껴졌었다. 그게 사실 참 무서웠다 내 친구는 너

밖인데, 너가 내 최고의 친구인데 지금 멀어질까봐.



지금이라도 늦은걸 사과해야 하나,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과할 정도로 잘 못한 건가 사과를 해도 모든 들은 정도인가
복잡한 장황이 들었다



우리.. 멀어지자



그 말을 들은 너는 이유를 물어보지도, 토를 달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는 듯. 멀어졌다

지금 너와 나는 남같은 사이, 아 그 사이를
넘어 우리말고는 아무도 모를 남보다 남같은 사이다.



누군보다 잘 서로를 알았지만...

넌 여우같았다. 내 마음이 전부

너에게 있었고 비껴나를 수 없었다.



벌어지고 나는 참 많이 미워했지만, 지금은 그냥 거기서 잘 살고.

너 없이도 이제 괜찮으니가

작가의

(전하고픈 말)

안녕하세요, 최고였다 최악 의 작가 박재희입니다.

이 책 내용은 저의 소중했던 친구와 멀어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 때 당시 친구와 멀어지고 마음리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친구만큼 잘 맞았던 친구가 없었거든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은 어느 한 줄의 구절을 인용하겠습니다. '잘 쓰명은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라, 그러면 또 다른 흐름이 올테니' 이 말이 제가 전하고 싶은 말과 딱 맞는 것 같아요.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인종차 질 수도, 자신과 잘 맞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계속 자신이 상처를 받고 힘든 관계라면 친구보다 자신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이 글로 읽은 독자는 저의 자신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좋은 존재라는 걸 알고 바랍니다

(명장면)

제가 뽑은 이 책의 명장면은 바로 13쪽 친구에게 후를 두고 상처를 받았던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저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담은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뽑은 이유는 그 때 당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서로 멀어지게 싫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멀어질 마음을 다졌던 이왕 가장 큰 일이 되었으면 장면이어서 인데요. 독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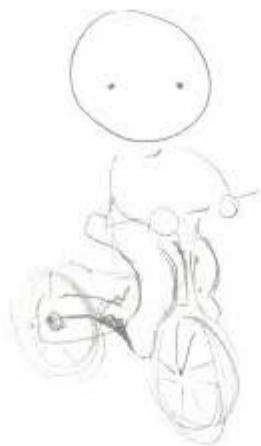
여섯 번째 이야기

4바퀴 말고 2바퀴!

글·그림 10104 김소연



나는 네발 자전거를 타고대났다.
근데자전거를타고있으니 나만 네발자전거를
타고있다..나만 네발이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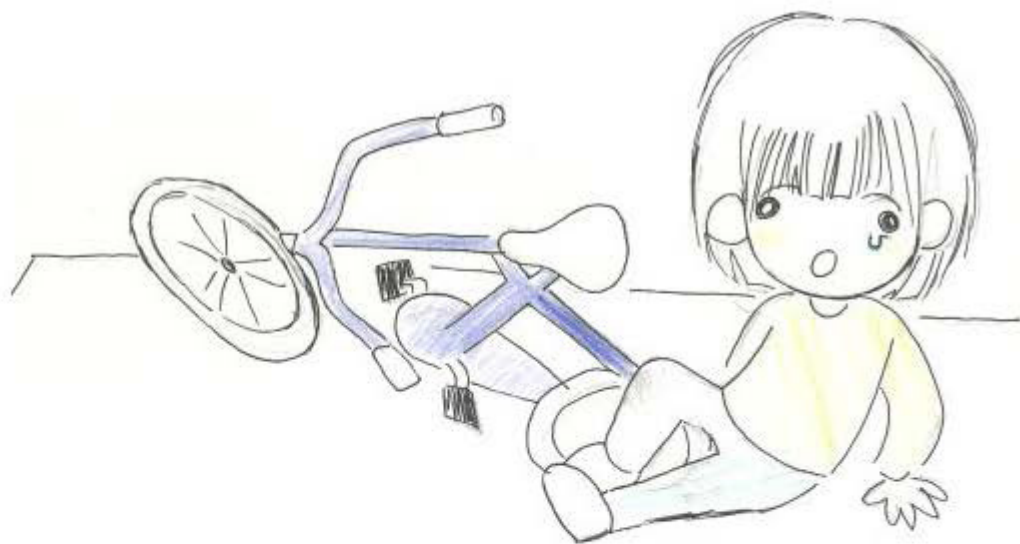
무작정 작은 바퀴
들을 빼고 타려고
했다.



나는 네발도
잘타니깐
두발도 잘탈 것이라는
상상을했다.

과당! 야 무지게 발을 풀리자 마자 넘어졌다.

너무 아팠다 하지만 간지를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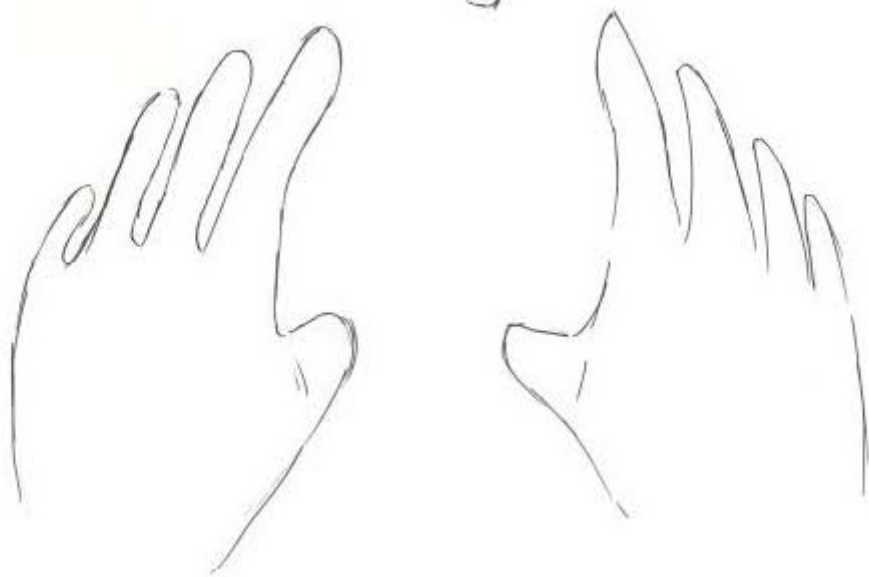


그렇게 하루하루 밥먹고 자전거 타고 학원갔다
자전거 타기를 반복했다.
3일째가 되던날





아빠는 매일마다
내자전거 뒷쪽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이제
탈수있을거라 믿고 잡았던
손을 뗐다.



나는 아빠가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전거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다.
그때 아빠가 말했다.



소연아 너재너 탈수있다!

그제서야 알았다 아빠는 손을 놓고있던것이다.



드디어 탈수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행복했다 몸이 하늘로
붕 뜰 느낌 이었다!



나는 타게 된게 너무 좋아서
두손을 놓고 경비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다가
손을 놓은 채로 쓰러졌다



그렇게 나는

두발 자전거를 탈수있는

개 간지

10살이

되었다

ㅎㅎ



그렇게 나는 문학기장에서
나의 실력을 뽐내기로 했다-





문학

경기장

내리막길

아빠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아도

내려올수 있다고 했다

나는 아빠를

믿었니까

그냥 내려갔다

아빠

아리
27 0000000





정민의 말

1. Q. 글을 통해 하고자 하는 말?

A.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무언갈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갑치면 다쳐요

2. Q.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 알게 된 점, 배운 점은?

A. 자기의 본성을 알아서 행동해야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Q. 내가 뽑은 명 장면과 이유

A. 1쪽입니다 제일 귀엽게 그려졌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감나무
아래서
할아버지

글·그림
조선우
(10217)

그믐 한점 없는 고요한 밤 갑자기 시골로
돌러가신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아버지가
시골로 잠시 내려가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엄마, 아빠 어디갔어??”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시골로 할아버지 보러 가셨어.”





새벽에 엄마가 흐느끼며 울고있었다.
차마 엄마에게 왜 울고있냐고 물어볼용기가
나지 않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푹싸인채
잠에들고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다는
최악의 소식을 듣게된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띠리링’ 할머니
게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
“장례를 치뤄야해.. 이젠 할아버지를 볼수없어”
라며 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덩다라 쓸개진 나의 고향을 통해 알수없는 슬픔이
밀려들어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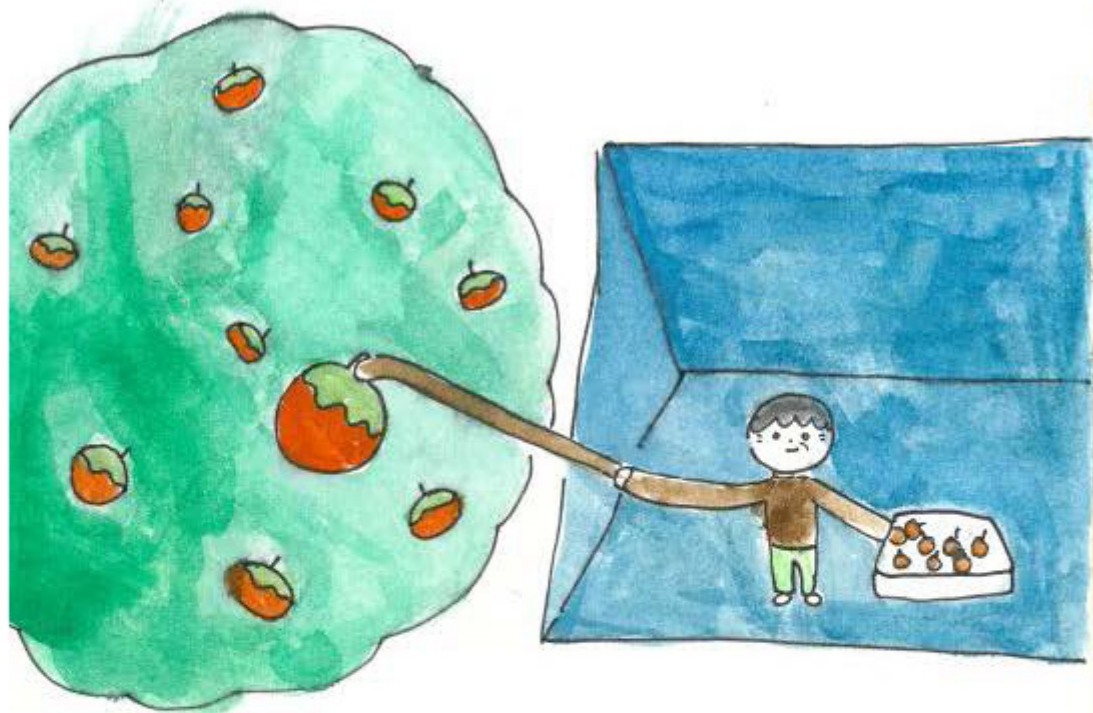
시골 백적, 사람들의 눈물과 통곡의 소리로
 가득찬 장례식장 안 웬지 모르게 점점 마음이
 아파오면서 알수없는 슬프고 외로운 마음에
 울어버린다. 이젠 할아버지를 볼수없다는 생각이 내마음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1년이 흐르고 할머니댁에 놀러갔을때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의 감나무 아래서의 '그날'의 이야기를 말씀
해 주셨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할머니의 입이 나를 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친후 할머니
께서 눈치를 보며 입을 때셨다.



할아버지께서 (시골) 친구분 댁에 놀러가신 날의
오후였다. 그날은 할머니가 전화로 감이 드시고 싶어
할아버지께 감을 따오라고 하셨을 때였다.
할머니께서 여기까지 말하셨을 때 뭔가 소름이
끼치고 주변 공기가 싸늘해 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는 감을 따시러 가셨고 한참 감을 따고 있을 때였다. 할아버지가 따시려는 감이 너무 높이 있어 할아버지 팔에 닿지 않자 할아버지는 지붕을 밟으 시고 감을 따시고 계신 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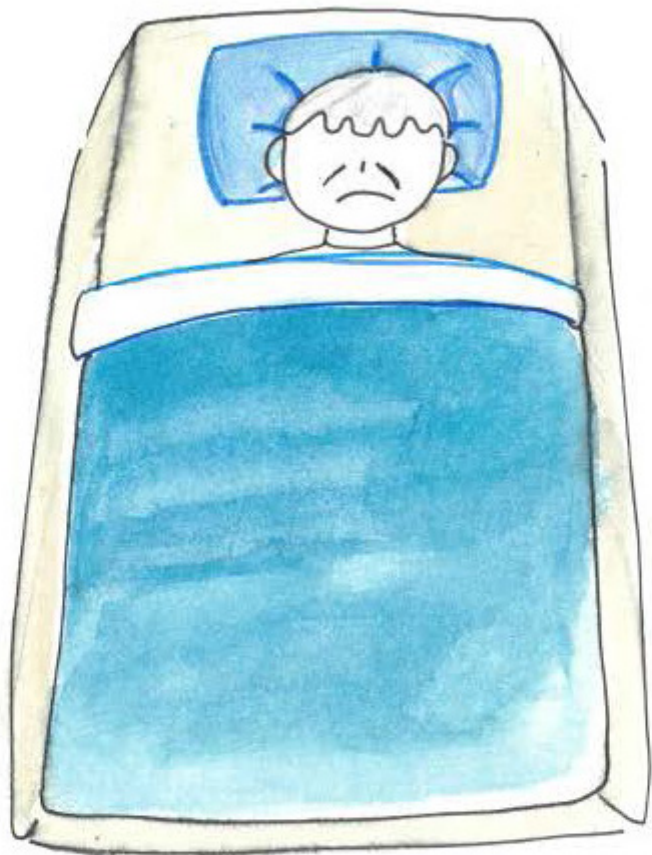


“으아악”

그만 할아버지의 발이 미끄러져서 할아버지가
굴러 떨어 지신 것이다. 할아버지를 천천히 떠올
려 보니 심장이 뱅글뱅글 뛰며 굴러 떨어진
할아버지 처럼 나의 막장도 와르르 떨어져 버렸다.



할머니의 딸썹이 끝나자마자 헤어나
오지 못할 층계에 빠진 나머지 아무말도 나오지
않았고 할머니와 나의 사이에 꽤 오랜
정적이 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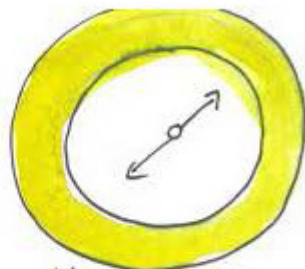
할아버지는 머리와 장기를 심하게 다친 나머지
영영 깨어 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한번 말
할수없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에 빠졌다.



평소에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꽤 어색했고 별 관심과
생각없이 그냥그냥 살았던 나의 태도가 너무 후회되고
자신이 야속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할아버지께 자세히 아는 거라면 점이었을 때
경찰이셨고 지금은 택시 운전을 한다는 것 밖에 제대로
몰랐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알았다.



많은 시간이 흐름

할머니께서도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할아버지 없이
지내는 것에 적응을 잘하셔서 일상생활을 별문제
없이 잘하고 계시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안
되었을 때는 거의 우울증에 시달리다 숲이 일상의 반을
노무라 사셨어



항상 엄마아빠가
나에게 잘해주셔도
짜증을 냈는데.....
만약 엄마아빠가 사라진다면
나의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릴것 같은데... 정말이지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의 곁에
있을때 잘해야겠다.
또한 있을때 잘해드리기
못해 할아버지께 후회
스럽고 만일 다시
할아버지를 만났다면
꼭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작가의

① 이 책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에게 더욱더 애정을 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할아버지께 큰 관심도 없었고
항상 가족에게 무뎌뎌하게 대했던
나의 좋지 않은 행실을 반성하며
이 책을 썼다. 따라서 독자들도
이 책을 읽고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망

- ② ^{나가고픈} 명장면은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다. 난 정확히 할아
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를 물라기에 깜짝 놀랐다

뽐뿌뽐뿌 글쓰기 마지막 페이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 보세요.

I

